



광주세계수영선수권
女 수구 대표 '첫 골'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의 경기를 지켜보는 선수들. 한국이 첫 골을 성공 시키고 환호하고 있다.

공정 · 격려로 빛다

헝가리전 패배 후 다음 경기에서 경다슬 득점 성공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닌 끝까지 하는 모습 보여주고자"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역사적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골은 공정과 격려로 빛어졌다. 세계 수준과 비교하기 힘들만큼의 전력 차이에도 웃으며 서로를 응원했기에 '첫 골'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남녀 수구팀을 출전시켰다. 남자 수구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지만, 여자 수구는 대표팀이 꾸려진 것 자체가 처음이다.

대한수영연맹은 5월말에야 부랴부랴 대표팀을 꾸렸다. 대표팀이 훈련을 시작한 것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불과 40여일 앞둔 6월2일이었다. 게다가 전문 수구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대부분 경연 선수들로부터 이뤄진 대표팀은 중학생 2명, 고교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부 1명이 포함됐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이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무대였다. 그래서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한 골'이었다.

홀로 레이스를 펼치는 경영만 하던 선수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만나니 오히려 23·전남수영연맹)를 중심으로 뭉칠 뻔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을 지도하는 흥인기 코치는 "개인 종목인 경영만 하던 선수들이라 단체 종목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수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다. 쉬라고 해도 선수들끼리 아간 운동을 하더라"고 전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은 흑독했다. 지난 14일 헝가리와의 2차전에서 0-64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점수차였다. 헝가리가 7차례 슈트를 던져

64개를 넣은 반면 한국의 슈팅 수는 3개에 불과했다.

처참한 패배에 실망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웠다.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다음 경기 각오를 다졌다.

헝가리전을 마친 뒤 오히려 "서로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지금은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힘을 내서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한 골'이라는 소박하지만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경다슬(18·강원체고)이 주인공이었다. 경다슬은 0-24로 끌려가던 4쿼터 3분44초 러시아 골문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슈트를 날렸고,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내용은 헝가리와의 1차전보다 훨씬 좋았다. 슈팅을 무려 30개나 시도했다. 헝가리전과 비교해 10배가 늘었다. 슈팅이 많아 지니 골도 나왔다. 12차례로 가장 많은 슈팅을 던진 경다슬이 득점에 성공했다.

경다슬은 "예상은 했지만, 0-64면 정말 큰 점수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이제 안 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코치님, 언니들, 친구들과 함께 '내일은 더 잘해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우리가 잘하려고,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각이었다. 엄청난 각오를 했다"고 전했다.

경다슬은 첫 골을 성공한 소감을 밝히면서도 동료들부터 챙겼다. "친구랑 언니들이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뉴시스

'지역 비하에 몰카 두둔까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인터넷서 대회 폼훼 심각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서

비하 · 조롱성 글 등 게시

조직위 '국격 떨어뜨리는 일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대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를 조롱하고 폼훼하는 글과 사진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다.

16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베(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최지인 광주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대회를 폼훼하는 사진과 글 수십여 건이 게시되고 있다.

게시물은 '북한 불한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 북한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냐', '황교안 좀 좋았다고 개최도시 시민들이 불쾌해?', '개막사에서 민주의 도시라고 한다. 00들'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욕설 섞인 조롱성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수구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입건된 일본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도 게시, 유포되고 있다.

일베를 중심으로 일부 커뮤니티에는 '애초에 야만스러운 동네에 간 일본인이 잘못된 거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조작 아니냐', '경기장 촬영이 무슨 죄냐' 등 주장을 담은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회 운영을 놓고 조롱과 폼훼, 개최 도시를 비하하는 게시물 중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언론 보도 목적으로 공식 배포한 사진을 무단으로 첨부한 글도 눈에 띈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전 국민이 성원하는 국제대회를 비방· 폼훼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릴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면서 "보도만을 목적으로 배포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 법적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2019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총 상금 2560만원/이하 페스티벌)을 8월 31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며 8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태권도원에서 열리며 '태권 레볼루션'과 '태권 배틀 킥 잇' 그리고 '킹 오브 더 팀' 등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태권 레볼루션'은 융복합 태권도 창작 콘텐츠 경연이다. 발레, 사물놀이, 비보잉, 체조 등 태권도와 다른 분야 간 합쳐진 형태의 공연 및 작품의 경연으로 어떤 분야든 무방하게 태권도와

'지금까지 이런 축제 없었다'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태권도원서

최고 격파팀 뽑는 '킹 오브 더 팀' 등 3가지 부문으로 진행

결합한 작품으로 참가 가능하다.

'태권 배틀 킥 잇'은 태권도와 트릭킹을 수련한 고수들의 경연이다. 연속 공중회전과 서커스에 가까운 발차기 기술들이 결합된 태권

도 고난도 트릭킹 기술 경연이 펼쳐진다. 경기 진행은 일대일 배틀 토너먼트 방식으로 참가자들 간 긴장감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는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킹 오브 더 팀'은 최고의 태권도 격파팀을 뽑는 경연으로 초·중등부, 고등·대학·일반부를 대상으로 경연을 펼친다. 페스티벌 전 부문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 제공 및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 트로피, 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이번 페스티벌을 지역과 함께하는 태권도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각종 만들기 체험, 태권 플라멩코 등 누구나 즐기고 참가하면서도 태권도원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특색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기존 태권도 대회와 경연의 형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축제형 경연 프로그램이다"라며 "태권도 수련생 및 도장, 일반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19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접수 등은 태권도진흥재단(<https://www.tpf.or.kr/tl/main/index.do>) 및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